

달마에게는 목마름도 배고픔도 없었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34) 석벽에 인각된 달마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빨리 갔다. 몇 년이 훌쩍 지나고 소실산(小室山)에도 다시 봄기운이 감돌았다. 추위를 들고 초록빛이 산야에 피어 올랐다.

이 날도 새벽부터 달마는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석벽을 마주 보고 앉아서 시공을 넘나들며 현묘한 경지에 들어갔다. 요즘 들어 달마는 낮에는 땅의 기운과 하나가 되고, 밤에는 하늘의 기운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접어들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기에 이르렀다.

고독하고 조용한 화룡동굴은 달마에게 있어서 명실공히 운반의 터전이다. 명이 정해졌기에 달마는 이곳에 머물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운은 그가 하기 나름이다. 달마는 그동안 온갖 풍상을 겪으며 강산을 떠돌아다니던 일조차 강그러 잊지 않았다. 그는 공허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었다. 거기에는 날짜나 계절의 개념조차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동굴로 스며든 햇빛

그렇다고 달마가 스승 반야다라 존자의 가르침조차 잊은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대승불학이 영원히 창성할 땅인 소림사를 잊을 리가 없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시급한 사안이고 그의 책무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달마는 조금도 서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조금씩은 이미 떠나 있었다. 그는 단조롭고 조용하게 면벽 좌선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세월이 흐르는 것조차 감각 속에서 지워 버린 그런 경지에서 수행에 몰두했다.

오늘 따라 유난히 사방에 고요함이 깃들었다. 새벽바람이 동굴 입구에서 불어와 달마의 살갓을 스쳤다. 차가운 바람 기운이 달마의 감각을 자극했다. 흔히 참선에 접어들면 삼계(三界)를 뛰어넘고 오행(五行)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깊은 선정이 들어 나를 잊을 때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좌선의 초입에서 한기(寒氣)가 사람의 피부를 찌르면 누구나 놀라게 마련이다. 달마도 물론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새벽의 찬바람에 달마의 몸이 약간 떨리는 듯싶었다. 그러나 달마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달마는 찬바람이 피부에 닿는 순간 봄의 교향악을 들었다. 동굴 밖의 산과 들에서 생명이 솟는 소리

가 음악처럼 바람에 실려 속삭였다. 모든 생명체의 기쁨은 그대로 달마의 몸 속에 체감(體感)되었다. 달마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했다.

어느덧 해가 높이 솟으면서 햇빛이 동굴 속으로 스며들었다. 동굴 속은 차츰 온기로 휘감겼다. 동굴 안에 있던 개미 같은 미물들은 비로소 활동을 시작했다. 조그만 미물들의 움직임에서 달마는 우주의 소리를 들었다. 우주가 주천(周天)하는 소리와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이어나고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긴 면벽 좌선으로 고요 속에 빠지면 아무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천둥번개 치는 소리로 들리는 법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천둥번개 소리조차도 소리 없음을 깨닫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소리 아님은 또한 소리인 것이다.

달마는 한낮이 지났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붉은 해가 서산에 지고 달이 동굴 밖 산마루에 걸리기 시작했다. 달마는 그래도 들부처인양 그대로 앉아 있었다. 벌써 달마가 곡기를 끊은 지는 오래였다. 심지어는 동굴 밖의 샘물조차 며칠째 찾지 않고 앉아 있기만 했다.

달마에게는 목마름도 배고픔도 없었다. 그의 입 속은 금진옥액(金津玉液)의 달디단 침으로 가득했다. 그 단 침은 하늘기운과 땅기운이 합쳐진 감로수다. 감로수란 흔히 '생명의 물' 또는 '법의 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물은 물 안에서 주천(周天)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만 생긴다. 이 때의 주천이란 사람의 몸을 하나의 소우주로 본 데서 비롯된 말이다. 주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치 우주가 운행하듯 사람 몸에도 기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주천이 이루어지면 소우주 곧 사람 몸이 대우주와 하나가 된다.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법일(法界)이고 커다란 깨달음이다.

달마는 감로수를 몇 모금씩 숨기운에 버무려서 식도로 넘겼다. 그는 이런 경지가 거듭되면 틀림없이 성불의 예조(豫兆)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앉아 있기만 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모르는 지인은 초조하고 불안했다. 지인은 달마가 공양을 사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몇 날 며칠 식

음을 전폐한 이 마당에선 어찌 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웠다. 물론 지인은 달마 조사의 공부에 의심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달마의 몸을 잊은 정진에 감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달마의 몸이 쇠약해지더라도 하여 쓰러질까 싶어 걱정이었다. 지인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늘 안절부절 못했다.

승려들은 절로 탄성

이 날도 저녁예불을 마친 다음 지인은 달마가 좋아하던 입맛 나는 반찬을 공양간에서 조금 내와 불레 석굴로 달려왔다. 오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마에게 공양을 들게 할 결심이었다. 지인은 그렇게



했다. "조사님. 공양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지요."

석벽에 비친 달마의 몸 그림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지인은 눈을

아기를 들려 주었다. 이 소식은 매우 빠르게 소림사 안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소림사의 승려들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의심과 호기심으로 다만 이야기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지인에게 직접 동굴에 가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지인은 서슴없이 그들을 화룡동굴로 안내했다. 여러 승려들은 동굴 앞에 이르자 앞다투어 화룡굴 안으로 고개를 들어 밀었다. 과연 정면 구석의 석벽에 달마가 좌선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하나의 조각이나 석상처럼 보였다. 승려들의 입에선 절로 탄성이 흘러 나왔다.

승려들의 놀라움은 금방 의경심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엎드려 경배했다. 승려들은 그들의 마음과 몸이 신비한 기운에 포용되듯 전율했다. 달마의 몸이 조각처럼 석벽 안에 들어가게 된 연유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이야기는 마치 초능력에 속하는 신화인양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조금도 초능력이 아니다. 달마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달마는 여러 해에 걸쳐 면벽 좌선하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돌칼을 연장으로 삼아 석벽에 자기의 그림자를 조각했다고 한다. 면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각할 때도 마치 진공(眞功)을 연마하듯 했다. 마음을 단고 숨을 죽이고 말을 잊고 생각을 끊은 채 오로지 벽을 향해 정신을 집중하여 돌칼을 움직여 나간 것이다. 이 때 석벽에 반영된 달마의 몸 그림자는 좌선 자세의 규범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자 달마의 앉음새와 석벽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다. 사람과 그림자가 털끝 차이도 안 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지인과 여러 승려들의 말을 전해 들은 주지 혜광은 마음 속으로 크게 놀랐다. 그것은 달마가 이미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혜광은 마음이 급했다. 이미 마음은 대승선법의 현묘함을 믿으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고민했다. 달마 조사를 좇아낸 죄책감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웠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동굴로 향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를 아래로 모셔 소림사에 계시게 하리라고 결심했다. 혜광은 동굴 앞에 당도하자마자 큰절을 하고 엎드려 울었다.

소림사로 모시리라

"소승 눈이 있어도 조사님을 알아 뵈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는 마침 선정에 들어 있었다. 동굴 안은 온통 침묵에 잠겨 있을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럴수록 혜광의 목소리엔 피가 맺혔고 한탄이 섞였다.

달마는 오래 전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지인이 석벽에 조각한 사실을 모른 채 신비화해서 퍼트릴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달마는 시기를 보아 지인에게 들을 새기는 일도 면벽 좌선에 못지않다는 것을 일깨워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처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전에 지인의 우연한 발견이 모든 사태를 급진전시켜 버리고 만 풀이 되었다.

달마는 이런 일조차 우연 아닌 우연임을 실감했다. 소림사로 돌아갈 때가 무르익은 참라 그것을 극적으로 무인 조화(造化)가 마음에서 닿았다.

달마가 앉아있던 자리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석벽엔 달마의 그림자가...

하지 않고선 달마가 면벽 좌선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인은 너무 급하게 달려온 나머지 숨을 헐떡였다. 동굴 밖에서 잠시 숨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죽였다. 동굴 앞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달마를 불렀다.

"조사님, 조사님."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인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따름이었다. 지인은 깜짝 놀랐다. 혹시 조사님께서 이미 쓰러진 것은 아닐까? 그는 급한 마음으로 동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영롱한 달빛이 동굴에 스며들며 석벽이 환하게 눈 속에 들어왔다. 그곳엔 달마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박혀 있었다.

지인은 안식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조사님께서 입정에 드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렇다면 감히 조사님께 방해가 돼서는 안 될 일이었다. 지인은 조용히 옆에 서서 기다리기로 했다. 한 시간도 넘게 그렇게 기다렸다. 그러나 달마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지인은 참다 못 해 몸을 굽혀 절하면서 말

의심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달마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지인은 석벽을 다시 한 번 쳐다보았다. 거기엔 분명 달마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드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설마 하니 조사님께서 석벽 속으로 용입(龍入)되었다는 말인가? 지인은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쳤다.

"조사의 은몸이 돌 속에 박혀 있다! 귀신이 곡 할 노릇이로다!"

지인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공양은 그 자리에 놓아둔 채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소림사로 돌아온 지인은 곰곰 생각에 생각을 이었다. 드디어 그는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달마의 몸이 돌 속으로 들어간 것은 몇 년에 걸친 면벽 좌선의 결과가 분명하다. 이것은 수행이 성공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대승선법의 현묘함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지인은 만나는 스님마다 달마 조사 이

"불가견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견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 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이 부어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정강 대 전 입장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그 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에 전혀 발열이 없음.
- 주문시 법당 일년보증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마산,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주)TG 반도체